

8월호

Contents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영화 관람기	2
장애인지원사업주최 문화체험 제2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람	4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다녀와서	6
2015 장애인 권익지원 캠페인	8
장애인 창업! 무엇이 문제인가?	10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여행지	12
장애아동의 정책	14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할 수 있니?	16
이달의 정보	18
장애인파파라치	20
이달의 시	22
외원가임	23
광고	24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영화 관람기

허성현



2015년 8월 6일 목요일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ILP) 회원들과 함께 영화<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영화 관람이 있었다. 지금까지 많은 영화를 봐 왔지만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영화는 관람 전부터 내 호기심을 자극

하기에 충분했다. 미션 임파서블 ? 무슨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품은 가운데 영화를 봤는데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조마조마함이나 궁금증보다는 잔인한 장면으로 인한 두려움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스릴 있는 장면으로 인해 나름 흥미로웠고, 일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단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은 미국정부로부터 해체 통보를 받게 된 최첨단첩보기관(IMF)을 정체불명의 테러조직 '신타케이트' 전멸 시키려고 하자 '애단 헌트'를 비롯하여 전략 분석요원 '브랜트', IT 전문요원 '벤지', 해킹 전문요원 '루터'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일사'까지 IMF를 수호하고자 하는 팀들 간에 대결구도를 그린영화로. 처음에 애단 헌트가 달리는 비행기에 올라타서 비행기에 탑재된 폭탄을 입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애단 헌트는 정체불명의 테러조직 신타케이트에 체포되고, 미국정부가 IMF의 해체를 명하자, IMF 요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얼마 후 애단헌트는 신타케이트 조직원 중 누군지 모르는 한 여자의 도움을 받아 풀려나게 되고, 이후 혼자서 신타케이트의 뒷조사를 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3분 내로 3.6미터의 콘크리트와 26만 리터의 물을 통과하기, 안면 인식, 지문, 음성을 모두 갖추고 암호풀기, 오토바이를 타고 자동차를 따라가기 등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미션들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

간다. 미션 중간 중간에 암살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면 또 다른 미션을 수행해야 하고, 계속해서 힘든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미션을 완수해 나간다. 영화관람 후 감동과 여운이 없어 아쉽긴 했지만 이 영화는 미션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가사의한 장면들이 스릴이 넘쳐서 좋았고, 워라 표현할 수 없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문득 드는 생각 중 하나~~!! 나도 이런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영화는 2시에 시작되는 관계로 관람 전인 12시에 모여 영화티켓을 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집단ILP 영화관람 때면 늘 있는 일이지만 한동안 못 보았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번에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감동과 여운을 지속할 있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 스태프 및 회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문화체험

제2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람

안혜영

장애인자립생활주택 프로그램 중 입주자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문화체험이다. 그동안 문화체험은 주로 영화나 뮤지컬 공연 관람으로 진행되었으나 8월 문화체험은 좀 더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 입주자와 논의 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체험을 하기로 했다.

8월 4일 금요일 점심 무렵 제2 롯데월드에 도착한 우리는 건물규모에 깜짝 놀랐다. 일단 건물 내부 통로가 넓어 수쿠터를 이용하는 입주자에게 불편함이 없었다. 일단 우리는 아쿠아리움 관람 전 체력을 충전하기 위해 롯데월드몰 푸드 캐피탈 왕궁이라는 곳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이곳의 시스템은 푸드 캐피탈 입장 시 마패를 받아 개인이 원하는 메뉴의 푸드점에 가서 마패를 주고 주문을 한 후 마패에 불이 들어오면 음식을 받고 식사를 하면 된다. 식사가 끝나면 출입구에서 다시 점원에게 마패를 주고 마패에 입력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는 시스템으로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우리는 본격적인 관람을 위해 지하 1층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의 예매소에서 티켓을 구매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의 어린이 관람객들이 많아 입구부터 혼잡스러웠다. 아쿠아리움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지하 1층의 관람순서는 한국의 강→열대의 강→아마존 강→바다사자 존→디 오션→벨루가 존→산호초 가든→플레이 오션→극지방 존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지하 2층은 바다사자 존→디 오션→벨루가 존→해양 갤러리→해파리 갤러리→오션터널→정어리 존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우리는 관람순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안내선을 따라 천천히 관람을 했는데 어린이



관람객이 많은 관계로 스쿠터가 수족관에 가까이 가서 관람 할 수 없었고 일부 통로는 너무 좁아 스쿠터 접근이 어려워 활동보조선생님과 코디네이터가 관람 구간마다 통로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우리 모두 아쿠아리움 관람에 집중할 수 없었다. 특히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너무 좁아 스쿠터 접근이 어려워 엘리베이터를 이용 했는데 엘리베이터도 공간이 너무 좁아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입주자는 수족관 관람 중 핸드폰으로 흰고래 및 산호초 사진을 찍는 등 아쿠아리움 관람에 관심을 보였다. 1시간 정도 관람 후 지친 우리는 출구를 찾아 이동했고 이동순간에도 어린이들과 스쿠터의 충돌을 막기 위해 통로를 확보하

며 간신히 아쿠아리움을 빠져 나왔다.

아쿠아리움 관람을 마친 후 입주자의 귀가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부른 후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 관람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얘기 했는데 입주자는 63빌딩에 있는 아쿠아리움이 더 크고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문화체험은 서커스나 악극을 관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아쿠아리움 체험은 힘들고 정신없었지만 입주자가 폭 넓은 지역사회 경험을 통해 조금이라도 자립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쨌든 성공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다음 문화체험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관람계획을 세우고 오늘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며 헤어졌다.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다녀와서

박남주

자립생활가정 입주자와 함께한 안전체험! 자립생활을 경험하는 입주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필수교육으로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안전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전규칙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다는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우리 강북센터 자립생활가정에서는 이런 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7월31일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동작구 보라매공원 안쪽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은 규모도 크고 각 체험관마다 시설이 참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체험관은 태풍, 지진, 화재, 교통사고 등에 대처하는 수칙을 익힐 수 있는 재난체험관과 심폐소생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등과 같은 전문소방시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문 체험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날에는 다른 시설 장애인분들과 함께 재난체험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체험관으로 이동하기 전 영상실에서 짧은 교육 영상시청과 함께 진행요원들에게 설명을 듣고 실전체험에 투여되어서 그런지 체험관이 마냥 놀이하듯 즐겁기 보다는 마음도 몸도 긴장되었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체험은 지진체험이었습니다. 사실 화재체험에서 교육 한 소화기 사용법, 화재현장 탈출법 등은 예전부터 많이 받아온 터라 달리 새로울 것은 없었고 교통사고체험은 체험관이 내부수리 중이라 영상교육으로만 진행이 돼서 현장감이 떨어졌는데 지진체험은 직접 지진이 일어날 때 대피할 곳, 동작 등을 실제로 흔들리는 방과 공터 안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안전 교육에서는 자립생활가정 가형에서 나형 주택으로 이사한 민선씨가 시간을 내 주었는데, 약간 시큰둥하던 첫 모습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자세가 아름다웠습니다. 생각보다 배울 점도 많고 실전처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사진출처: 보라매안전체험관 홈페이지>

말하는 민선씨의 얼굴 표정이 밝아서 코디인 저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 안전체험관 방문으로 알았던 안전상식도 재확인 하고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우리 강북센터 자립생활가정 입주자들의 안전수칙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상식을 쌓은 것 같습니다.

똑부러지고 믿음직한 우리 강북센터 자립생활가정 입주자지만 안전불감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욱 현명한 자립생활을 영위를 해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코디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 강북센터 자립생활가정 입주자 민선씨의 안전체험 실습 사진



2015 장애인 권익지원 캠페인

박계형

7월 31일. 강북센터 활동가들이 전원 가양역으로 출동하였습니다.

다음아닌 2015 장애인 권익지원 캠페인 때문인데요, 아름다운행동 센터 뿐 아니라 구로나눔센터, 피노키오 센터, 동서울장애인센터 등의 활동가들이 연합하여 진행하게 된 첫 번째 캠페인 활동이었습니다.



장애인 권익지원 캠페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기 용으로 행정편의식 일괄적 복지서비스가 아닌 공무원이 찾아가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제공, 활동지원인의 처우 개선비의 지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 일반 비장애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지도 모르나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서비스 개선요구안들을 피켓으로 제작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활동가들이 땀 흘리며 권익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장애인은 일을 못한다, 장애인은 무능하다 등의 인식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강북센터에서는 장애인파파라치 사업의 일환으로 동영상 촬영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2015년 장애인 권익지원 캠페인에 참여하는 장애인당사자 및 활동가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 결과물에서 나온 피드백을 활용하여 장애인 권익사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주요 목적과 매년 그 해의 핫 이슈 및 강북센터의 활동내역에 관한 촬영 본을 생산하여 장



애계의 동태를 파악하고 앞서 나가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는 장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촬영이었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한 활동가들 거의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캠페인이었지만 침착하게 잘 따라 주셔서 무사히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캠페인인지라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나, 장애인당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시민에게 다가서는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캠페인 활동이 끝나고 식사시간을 가지며 활동가들의 여러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었는데요. 이번 2015 장애인 권익지원 캠페인 평가들과 장애인파파라치 동영상 촬영을 토대삼아 피드백을 활용하여 한층 더 발전한 권익옹호 캠페인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 창업! 무엇이 문제인가?

이하용

그동안 장애인의 창업 분야는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통계청 자료 12년 12월을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은 251만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성 장애가 9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낮고, 실업률은 약 2배 수준, 고용률은 절반도 안 되는 상태이다.

장애인 창업에 동기는 개인에 성장 가능성(32.3%), 안정적 일자리(24.1%), 구직애로 및 직장생활애로(26.3%) 등이 계기가 되어 창업을 결심한다. 창업을 하더라도 장애인 사업체 수는 34천여 개로 비장애인의 사업체 전체에 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90.6%가 영세한 소상공인이다.

장애인의 창업 평균자본금 168백만 원, 평균매출액 688백만 원, 평균 근로자 수는 4.25명의 영세한 경영구조로, 장애인기업 10곳 중 7곳은 창업 결심 후 1년 이내에 창업하지만, 자금부족, 매출부진 및 마케팅능력 부족 등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이 창업에 실패율이 높은 이유에는 정부의 창업지원시책도 한몫하고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의 그릇된 인식 등으로 창업 및 기업 활동에 많은 난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장애인이 창업을 하였을 시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촉구하고와 구매실적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생산을 제고하도록 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부스임차료, 판촉활동비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창업교육, 창업보육서비스, CEO교육과 판로 등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취약한 자금력 및 담보력을 고려하여 장애인기업 전용 자금(200억원) 지원 및 특례 신용보증 연계해나 갈 계획이다.

장애인창업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창업 이미지 개선 및 운영이 잘되어가고 있는 장애인기업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를 하거나 내년에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적성검사 및 전문상담 - 특화교육 또는 창업인턴 -

창업자금 - 창업” 교육이 가능한 원스탑 창업지원체제를 구축하여 500여명에게 창업



지원 서비스를 시범 지원할 계획이며, 초기 창업자에게는 경영애로 전문가 상담 및 판로 등의 지원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위주에서 성장유망분야·신사업분야 등 도전적 창업 유도를 위한 창업교육 개선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컨설팅(코칭)지원과 장애인 기업 및 정책인지도 향상 등 지속적 추진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장애인 창업의 아이템 발굴과 보급 및 창업성공사례 전파를 위하여 장애인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아이템으로 수상자에게는 창업제작지원과 관리 지원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 <http://www.debc.or.kr/default.asp>

[글은 본 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여행지

전난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 17곳을 최근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관광자원 5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뽑았다. 모두 휠체어 접근성, 보행로 연계성이 좋고 위생시설과 안내시설 등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서울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표적인 무장애 관광지다. 지하철 4호선 이촌역 2번 출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항상 대기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물도 곳곳에 있다. 인접한 용산가족공원과 한글박물관을 함께 돌아보면 하루 나들이 코스로도 좋다.

전북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은 입구에서부터 선운사와 도솔암에 이르는 계곡길이 평지로

이어진 만큼 편리하게 초록 숲과 계곡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선운사 일주문 인근 계곡에서 도솔천을 따라 이어지는 탐방로는 상사화 군락지로, 목재 데크가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도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 순천의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역시 드넓은 갈대밭 사이로 나 있는 목재 데크를 따라 돌면서 대자연을 감상하기에 불편하지 않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섬을 여행하려면 불편함이 많다. 하지만 춘천 남이섬은 가평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데 휠체어도 무리 없이 승선할 수 있어 추천할 만하다. 섬 곳곳을 잇는 산책로와 독특한 테마의 전시관을 비롯해 쉼터와 편의시설 역시 휠체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충북 제천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농사를 위해 축조한 저수지로 약 1.8km에 이르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물가를 따라 늘어선 버드나무와 소나무, 뽕나무를 벗삼아 다니기 좋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잘 갖췄다.

경북 포항 국립등대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등대박물관이다. 등대와 관련된 유물과 자료를 전시 중이며 노젓기 체험, 퍼즐체험 등 직접 만지고 느끼는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의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순천만, 한국민속촌, 통영케이블카 등 6개 관광지를 선정하고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여행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42659011>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abcde30/220390125073>

장애아동

박계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복지법 제2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진다.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또한 장애를 보는 관점에 따라 장애의 범주는 달라질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다음과 같이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기능장애이다. 이것은 유전, 사고 또는 질병 등에 의해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성을 의미한다. 둘째는 능력 장애이다. 이것은 기능장애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될 때 쓰이는 장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의 능력 제약이나 결여를 의미한다. 셋째는 사회적 불리이다. 이것은 기능장애나 능력 장애에 의해 야기된 사회의 불이익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장애아동의 복지 대책은 첫째, 장애아동 가족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개발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아를 둔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 능력은 전적으로 가족책임으로 여겨져 왔으며, 장애아동의 양육, 치료, 교육 등에 대한 압박은 장애아동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재활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 가족상담, 형제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장애아동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장애아동 가족기능 역량 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가족기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가족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아동 가족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이지를 파악하고,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 상담 등을 통하여 가족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가족이 구심점을 찾을 수 있는 심적인 지지체계를 마련하여 가족의 심리적 해체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족구성원들이 가족복지서비스 계획, 개발, 서비스목표 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강점을 파악하여 장애아동 가족 스스로가 자신의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장애아동의 양육, 보호, 교육방법에 적절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장애아동 부양으로 인한 교육, 의료, 재활치료에 대한 경제적인 과부담과, 장애아동 돌보기로 인한 취업불가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장애아동 가족은 비장애아동 가족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장애부모 취업프로그램, 기술훈련습득기회 제공 등)을 개발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소득을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한 포괄적인 가족중심 서비스가 제공되어 져야 한다. 대부분의 가족지원서비스가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철학적인 경우로 실질적인 실천이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장애아동의 가족형태와 생활스케줄에 따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시설이용아동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아동에 맞는 가족서비스가 제공되어 져야 한다. 단순

한 장애아동 가족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장애아동 가족형대중심의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장애아동 가족의 만족도를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의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가족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기관(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병원, 재활치료기관, 특수학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장애관련 지식습득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가족이 가정 내에서 장애아동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 지지해 줄 수 있는 장애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지서비스를 강화해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아동 관련 기관들의 서비스가 뒷받침되어 져야 한다.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에 대한 정보적 모임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통하여 상호간의 지지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평가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의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아동의 복지에 대한 정책적 대책은 첫째 가족지원은 크게 비공식적 지원과 공식적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사회적 그룹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지원이고, 후자는 교사와 의사,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가와 학교와 병원 등의 국가기관을 통해서 받는 지원이다. 둘째 교육지원서비스 각 지역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상담 및 진단평가지원, 특수통합교육 지원, 순회치료교육지원, 직업전환교육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법적지위 및 권리보호, 교육 및 재활을 위한 정책마련, 성인기 진로 및 보호시설 마련, 장애부모 및 장애인 취업알선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넷째 가족관계지원서비스 즉 장애아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가족관계지원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장애아부모의 부모교육, 양육 및 역할교육, 전문가 상담서비스, 부모 자조집단 활성화, 비장애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지원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째 생계지원서비스이다. 장애아동 가족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에 한해 생계비지원, 장애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세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18세미만의 1급 장애아동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인당 7만원이다. 그러나 기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상황 및 가정의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섯째는 의지원서비스인데 장애인을 입원,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보장제도로는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의료급여,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이처럼 의료보장급여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하는데 충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미경 외, 특수유아교육, 교육아카데미, 2011, 권육상 외, 장애인복지론, 유평출판사, 2005, 김명희, 아동복지론, 교문사, 2006, 김미옥, 장애인복지 실천론, 나눔출판, 2003, 김미옥,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

[글은 본 센터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할 수 있니?

전난희

지난 주말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 오래간만에 혼자 영화를 볼 생각으로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하다가 '뷰티 인사이드'랑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렇게 두 편을 보기로 했다. 개봉하기 전부터 보고 싶었던 '뷰티 인사이드'는 자고 일어나면 외모가 바뀌는 유전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남자와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이야기이다. 물론 실제론 그런 병이 있을 리 만무한 판타지영화이다. 보고 난 소감은 잔잔하고 담백한 그런 느낌이랄까.....?



처음 만나는 판타지 로맨스
뷰티인사이드
배우: 김태형 | 김세주희 | 김진 | 김해원 | 이종 | 고아성 | 나수진 | 유연석

‘뷰티 인사이드’에 나오는 ‘우진’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디자인한 가구를 판매하면서 살아가는 성실하고 평범한 청년이다. 얼굴이 매일 비편다는 것만 빼면... 그런 그에게 ‘이수’라는 사랑이 찾아온다. 매일 들리는 가구점에서... 그녀는 ‘우진’과 너무 닮았다. 외모가 아닌 성격과 생각.. 여러모로...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 단 한 사람이 생긴 것이다.

‘우진’은 자기의 얼굴이 잘생기게 일어난 날 그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는 말을 하기 위해 연습에 연습.. 또 연습을 하고.. 드디어 잘생기게 일어난 날 그녀에게 “초밥이 좋아요? 스테이크가 좋아요? 사실.. 연습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 꼭 그쪽이랑 밥 먹고 싶어서...” 라고 고백을 한다.

‘우진’은 그녀와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에 얼굴이 된다는 걸 알기에 ‘우진’은 이틀이나 잠을 자지 않고 그녀와의 만남을 이어간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잠을 안자고 버틸 수 있단 말인가...? 그녀와 아침을 먹기로 한 지하철에서 깜빡 졸던 우진..... 이런 xx! 망했다!! 대머리에 배도 나오고 완전 아저씨로 깨어난 우진. 그런 모습으론 도저히 그녀 앞에 나설 수 없어 그녀와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도 ‘우진’은 매일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지만, 그녀를 도저히 잊을 수 없어서 그녀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한다. 과연 그녀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매일 아침마다 모습이 바뀌는 그를 그녀는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영화에서의 둘에 사랑은 이루어지며 끝이 난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장애인의 사랑과도 일맥상통하고 동성연애는 물론이고 노년에 사랑하고도 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영화 속 ‘우진’은 같은 남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자와 노인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습이 변화기 때문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능력도 있지만 그가 또는 그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상대방은 과연 그 중증장애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능력 있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지만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연애를 한 번도 못해 본 장애인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물론 중증장애인들 중에서도 비장애인과 결혼하여 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케이스는 드문 일이다. 보통에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남자 혹은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애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성이 있다. 장애인도 사랑에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맘에 드는 이성 나타나면 가슴 설레기도 하고 고백을 하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할까봐 고백은커녕 다가가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이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외적인 요소만으로 한 개인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도와주어야 할 사람, 동정에 대상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도 한 개인으로서 당당하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사랑을 지켜나갈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달의 정보

김소연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①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담당관 김진현)은 최근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과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고용기업에 이르기까지 관련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목별 공제감면 사항, 비과세·면세 등 세법상의 각종 혜택이 16개 항목으로 나뉘져 상세히 설명돼 있다. 첫 번째는 소득세의 경감 및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혜택이다.

- 소득세 계산 시 각종 공제 혜택=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소득세 부담을 줄여 준다. 먼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존비속·형제 자매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하지 않는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100만원 범위에서 15%를 공제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여기에서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700만원 한도)에 대해 15%를 공제하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만 65세 이상자와 장애인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총급여액 3% 초과분 전액에 대해 15%를 적용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나이제한이 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제외)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지출액 15%를 공제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재활교육을 위해 관련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금액제한 없이 전액 인정한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시 특례적용=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경비율을 할증해 적용한다. 단순경비율이란 수익금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에 미달하고 장부를 하지 않은 영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연도별·업종별로 인정하는 경비율(업종별 수익금액 : 2,400만원~6,000만원)이다. 예컨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14년도에 총 수입금액이 4,500만원인데 이 업종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2014년도 단순경비율은 86%다. A씨가 장애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닐 때는 630만원, 장애인 일 때는 504만원이다.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86%가 바로 적용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88.8%로 할증해 적용하게 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장애인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 공기업은 제외)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업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업장애인 감면대상 기업의 종류는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주점 및 비알콜 음료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 감상실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적용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여부 관계없이 만 15~29세의 청년 및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다.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이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게 감면신청을 해야하며, 감면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저축=장애인 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입한 원금 3,000만원 이하의 생계형비과세저축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15.4%)를 모두 면제한다. 비과세저축 가입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국가유 공자 지원법'에 의한 상이자, 관계법령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다.

-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시 부양자녀 특례적용=총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그 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장애인이다. 다만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이 3급 이상이면 해당된다. 또한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의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5·18민주화 보상법'에 의한 3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지급대상 연도의 다음연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은 ARS, 모바일 앱, 인터넷,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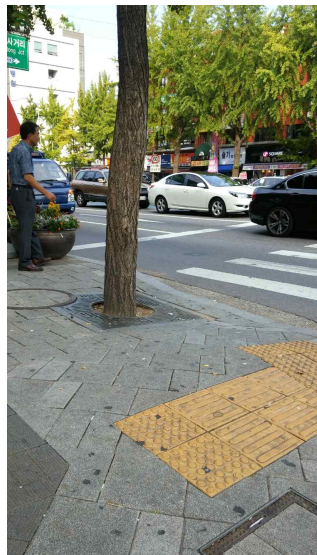
-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인파파라치

이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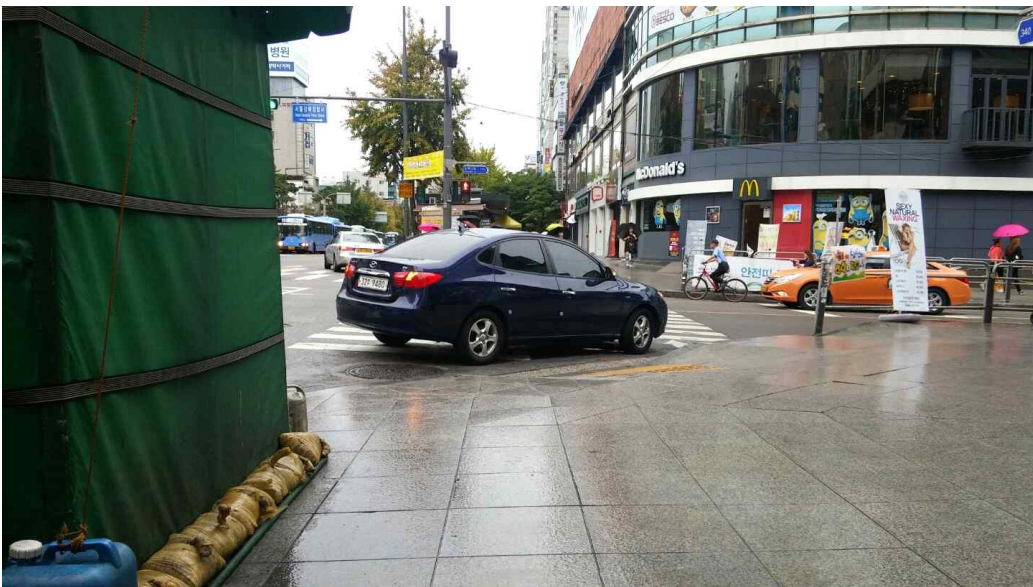
강북구청사거리 신한은행 맞은편으로 횡단보도 내려가는 경사로 부분에



가로수를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다.



8월 25일 롯데리아 앞 횡단보도 위 인도 입구를 차를 정차시켜 놓은 모습.



이러면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매우 힘들고 위험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 정호승 -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그루 나무의 그들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운인가

15년 8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숙이 김은순 김용자 김종환 김종민 김태환
권윤정 박동열 박시연 박선아 배소영 박원배 손연숙
안병훈 예성호 오재준 우의정 유순예 이광섭 이승준
이영석 이영숙 이영훈 안해영 이태연 임상욱 전난희
정주영 정종남 최윤숙 최전균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시설에서 지역으로!” 회원가입서

※ 아래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인(서명)

신청인	생년월일(양/음)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직장 :	<input type="checkbox"/> 자택 :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
장애유형	장애급수		
집 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우편발송	<input type="checkbox"/> 집	<input type="checkbox"/> 직장	
전자우편			
가입동기	<input type="checkbox"/> 지인소개	<input type="checkbox"/> 매스컴	<input type="checkbox"/> 행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월 약정 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 CMS출금이체 동의서(회비 자동이체 신청서)

본인은 CMS 출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출금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인(서명)

출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주민번호		
이체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만원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 일	

“경사로 설치사업”
행복바퀴로 찾아가는 강북구
포스터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변동 446-13 가든타워 906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